

러셀 엠 넬슨 장로, 브라질 교회 역사적인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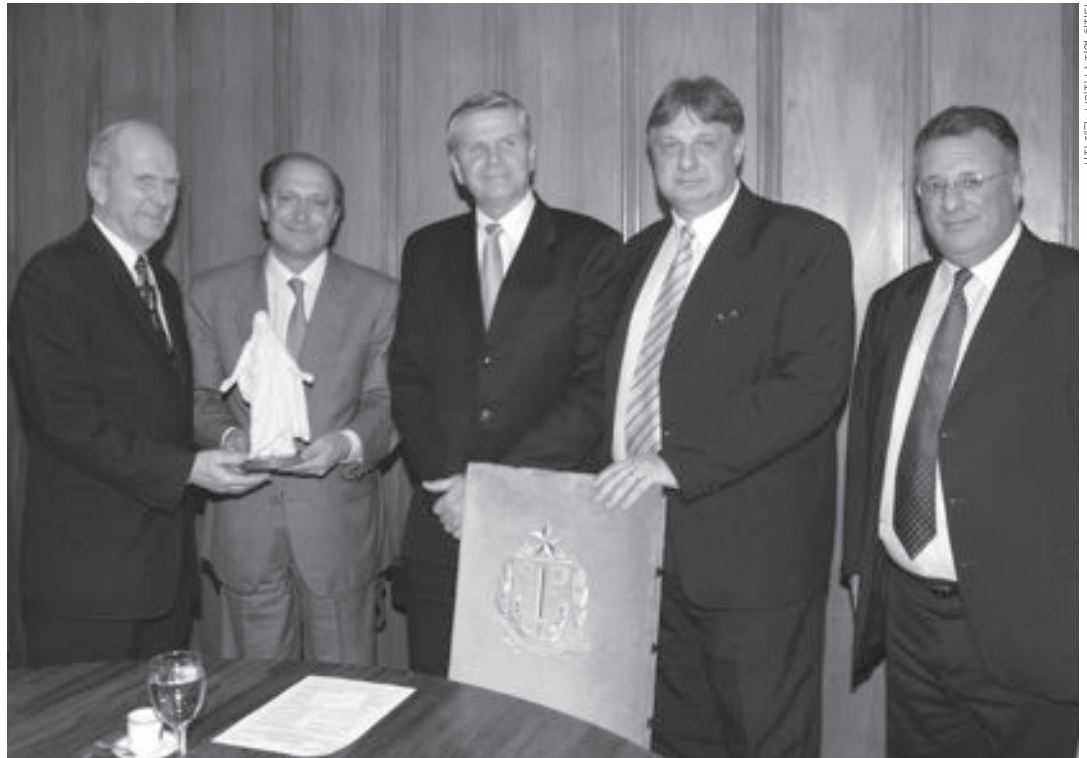


사진 제공: 브라질 남 지역 회장단

러셀 엠 넬슨 장로(왼쪽)가 헤랄도 알크민 상파울루 주지사에게 소형 조각상을 선물하고 있다. 왼쪽부터 머빈 비 아놀드 장로, 모로나이 토르간 후기 성도 연방 의원, 그리고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 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브라질 교회에서 역사적인 날로 남을 2006년 2월 3일,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잘 알려진 관리 두 명, 호세 세라 상파울루 시장과 헤랄도 알크민 상파울루 주지사의 영접을 받았다.

세라 시장과 만나는 동안, 넬슨 장로는 세라 시장이 연방 정부의 보건 장관이었던 2001년 8월 15일에 브라질리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시작된 우정을 새롭게 했다. 매우 최근에 이루어진 이 방문 동안에 시장은 교회의 인도주의 지원 및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의 교회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수년 동안 교회는 브라질에서 학교 페인트 칠 작업, 공원 청소, 병원

환자복 수선과 같은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후원해 왔다.

넬슨 장로는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라 시장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한 부를 증정했으며 구주의 신성에 대해 간증했다. 또한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상을 복제한 작은 그리스도상을 시장에게 증정했다. 베르텔 토발드센의 원작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다.

방문이 끝날 즈음 세라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와 시장실의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도우며, 궁핍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좀 더 늦은 시간에 넬슨 장로는 헤랄도 알크민 상파울루 주지사와의 공식 회견을 통해

영접을 받고 주지사와 우정과 이해의 유대를 맺었다. 높은 가족 표준을 지닌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크민 주지사는 그의 부친의 가르침을 회상했다. 그러자 넬슨 장로는 교회의 몇 가지 원리와 가치관을 소개했으며, 주님의 계획에서 가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지사는 2004년 2월에 있었던 상파울루 성전의 재헌납에 앞서 가진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했던 일을 회상했다.

“이곳 상파울루에 있는 교회 성전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깊은 감명을 느꼈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 좀 더 큰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지사는 넬슨 장로에게 말했다.

주지사는 방문을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 상파울루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자원 봉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원리들과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을 끝낼 즈음 회견을 녹화하는 동안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넬슨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관대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정말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주지사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과 소형 복제 그리스도상을 받았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며 브라질 남 지역 회장인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연방 의회의 모로나이 토르간 의원, 그리고 브라질 공보 책임자인 페르난도 아시스 장로가 넬슨 장로와 함께했다. ■

Church News, 2006년 2월 18일자에서 발췌.

교회 봉사 선교사들을 위한 많은 기회

브리트니 카포드, 교회 잡지

돈 지글러 장로와 통화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돈 지글러입니다. 전화로 술래잡기를 하는 게 운동이 될까 궁금한데요.”라고 그는 장난스런 전화 음성 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말한다. 깔깔 웃는 소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교회 봉사 선교사들은 교회 본부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바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과일와 채소의 보급을 촉진하거나, 건강 박람회를 계획하거나,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영양가를 식당 게시판에 올리느라 바쁘다.

이러한 일은 지글러 장로와 그의 아내 샤론 지글러 자매가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함께 하는 일에 포함된다.

이것이 놀라운가?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시간제 교회 봉사는 매우 다양하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고,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서적 역량이 있고, 자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19세가 되어야 한다.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

교회는 LDS.org에 이러한 필요 사항 목록을 올려 두고 있다. 전 세계의 교회 봉사 선교사 책임자들이 제출한 이 내용은 온라인

www.lds.org/csm에서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공표된다.

의사, 안내자, 정비원, 심지어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사람 등,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일을 돕는 자원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약 12,000명의 교회 봉사 선교사가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교회 봉사 선교사 전체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행정 보조인 래리 엘 와이팅 장로와 케이더블류 와이팅 자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 기회에 대해 안다면 더 많은 자리가



교회 봉사 선교사인 팀 캠벨 형제와 대릴 마일즈 형제가 봄에 대비해 텀플 스퀘어 주변의 땅을 준비하고 있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선교사들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4시간에서 32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제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한 봉사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교회 봉사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는 곳에 특별한 영을 가져다 준다고 모두 말한다.

와이팅 장로와 자매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모든 교회 봉사 선교사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지만, 시간제 봉사 선교 사업이 전임 선교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한다.

“우리는 교회 봉사 사업과 그 외 선교 사업에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 사람들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와이팅 장로는 말했다.

하지만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부름은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한 부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온다. 기꺼이 봉사하기로 한 합당한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공식 중인 직책을 선정한다.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을 갖는 것 이외에도, 요구되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 내지 업무 관리자가 종종 그 사람을 면접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지자가 아닌 스테이크 회장이에게서 부름을 받아 감독에 의해 성별된다.

와이팅 장로는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이 전임 전도 선교 사업에 대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러한 봉사 선교 사업은 탁월한 대안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봉사 선교 사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전임 선교사로 봉사합니다. 이는 훌륭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추천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고,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서적 역량이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9세가 되어야 한다.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

실제로, 현재 102세인 매리 앨리스 헨스 자매는 자신의 신청서에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안내자로 삼 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적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봉사해 왔다.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어요.”라고 헨스 자매는 말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연령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매년 나부에서는 여름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도록 35명의 젊은(19~24세) 무대 공연 선교사 및 밴드 선교사를 모집한다.

와이팅 장로는 컴퓨터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시청각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같은 젊은 봉사 선교사들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었던

약 300명에 이르는 젊은 성인들이 현재 교회 봉사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봉사



게리 피츠제럴드 형제가 컨퍼런스 센터에서 안내자로서 교회 회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와 그의 부인 가르나 자매는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안내 관리자이기도 하다.

시간 할양: 이담 시 울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다.

“이 일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와이팅 장로는 말했다. “바로 이 사무실만 해도 당장 줄 수 있는

일이 160가지나 됩니다.”

일자리 목록은 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와드와 지부가 그 지역에 있는 기회의 목록을 인쇄하여 건물에 게시하고 있다. ■

불과 석 달 전에 처음으로 봅슬레이를 타 보았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봅슬레이 팀이 국제 경기 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앨버타 대학교 미식 축구 팀의 러닝 백으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들은 유럽으로 떠날 준비를 다 마쳤지만, 데이비드는 그때까지도 봅

토리노 올림픽: 후기 성도 선수들과 그들의 성취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나아가 시상대에서도 후기 성도 운동 선수들은 교회를 크게 빛내 주었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에서 온 회원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인된 종목들 가운데 거의 반이나 되는 종목에 출전했다. 나이를 막론하고 회원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꿈을 펼쳤다.

미국 대표팀의 쇼너 로벅 자매는 여성 2인조 봅슬레이 경기에서 최종 경주 기록 57.71초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유타 주 오렘 출신인 그녀는 28세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축구와 육상을 한 후, 취미로 봅슬레이를 시작했다. 그녀는 두 종목에서 두 번이나 미국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번 올림픽은 뒷다리 관절 인대 부상으로 인해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탈락한 후로 그녀가 맞는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명의 처녀 출전 봅슬레이 선수이며 캐나다 앨버타 주 에드몬튼 출신의 회원인 데이비드 비셋 형제보다는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데이비드 형제는 올림픽 경기



미국의 쇼너 로벅 선수와 그녀의 동료 봅슬레이 선수가 토리노에서 결승점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슬레이를 타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데이비드의 아버지 론 비셋 형제는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형제의 출발 시간은 올림픽 경기에서 세 번째 및 네 번째로 빨랐다. 그는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집에서 대회를 시청하던 그의 부모는 아들이 정말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개막식 동안에 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데이비드가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휴대 전화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는 우리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라고 데이비드의 어머니 킴 비셋 자매는 말했다. “우리도 같이 손을 흔들 뻔 했어요.” 이제 데이비드가 집에서 좀더 가까운 밴쿠버에서 열리는 2010년 동계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족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다.

유타 주 오랜 출신의 회원인 스티브 나이만 형제에게도 첫 번째 올림픽 경기였다. 그는 토리노에서 보았던 자원 봉사에 대해 깜짝 놀라며 집으로 돌아왔다.

“‘야아,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티브는 이런 높은 수준의 대회에 출전한 첫 해에 활강 경기에서는 19위를, super-G 경기에서는 43위를 차지했으며, 활강 경기를 하는 날에는 언덕에서 24번째 생일을 맞았다.

“저는 몇 가지 큰 실수를 했지만, 아래까지 내려가서 표시판에 제 이름과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했습니다.”라고 스티브는 말했다.

눈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유대는 호주

쿰바에서 온 스노우보드 선수, 토라 브라이트 자매에게 중요한 일이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는 그녀도 처음이었다. 그녀의 오빠 벤이 그녀의 스노우보드 코치이며, 언니 로웨나는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에 출전했다. 그리고 여동생 애비는 유망한 스노우보드 선수이다. 토라는 불과 19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 출전해 메달권에서 딱 2단계가 부족한 5위에 들어왔다.

선수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쪽에는 52세의 베르네르 오에헤르 형제가 올해의 남자 최고령 선수로 루지 종목에서 베네수엘라를 대표하여 출전했다. 2002년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그는 당시 18살된 아들 크리스와 함께 출전하여 같은 올림픽 경기 같은 종목에서 서로 경쟁을 한 최초의 부자로 기록되었다. 2002년에 40위를 차지했던 그는 올해 32위로 올라섰다.

오에헤르 부자는 동료 후기 성도 올림픽 루지 선수로, 올해 올림픽 경기에 아르헨티나를 대표해 출전한 미셸 데스페인 선수와 친한 친구이다. 베르네르 형제는 미셸이 토리노 올림픽 경기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예선을 치르는 동안 위험천만하게 넘어진 후에 그녀에게 신권 축복을 해 줄 기회를 갖는 영광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셸은 현저하게 회복되었으며, 비록 올림픽 경기 네 번의 경주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출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켜 주기도 했다.

동료 루지 선수인 앤 애버내티는 미셸과 여자 루지팀 선수들 모두가 서명한 선



베네수엘라의 베르네르 오에헤르 형제는 올해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 최고령 출전 선수였다. 그는 남자 루지 경기에서 32위를 차지했다.

물을 받은 후 보여 준 미셸의 친절에 주목했다. “아르헨티나의 미셸 데스페인 선수가 좋은 글귀를 써 주었습니다.”라고 애버내티 선수는 AP 통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앤, 당신의 모범에 감사드려요.’라고 적었습니다. 그 글이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다른 후기 성도 운동 선수들 중에는 올림픽에서 6위를 차지한 독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골키퍼 스테파니에 바르토치 쿠에르텐 선수와 미국의 에어리얼 스키 출전 선수인 조 맥이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조는 올해 15위를 차지했다.

스티브 나이만 형제는 올림픽 경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괄목할 만한 경험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파악하고, 2010년에는 출전 자격을 획득해야죠.” ■



아르헨티나의 미셸 데스페인 카르바할 자매는 연습 경주 동안 끔찍한 충돌을 겪은 후 받은 신권 축복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교회, 새로운 회원들에게 리아호나 특별호를 권하다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는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새로운 회원을 위한 특별호인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에는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말씀들이 실릴 예정이다.

교회 잡지를 관리하는 집행 책임자 제이 이 젠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고] (교리와 성약 18:10) 말씀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환영하는 우리의 새로운 형제자매들에 대해 수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특별호를 통해 그들이 가진 공통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환영 말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모든 회원이 알기 바라는 것, 교회의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이 모든 주제들과 그 밖의 주제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만든 잡지에 포함된다.

오래된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특별호를 받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새로운 회원들을 양육하는 일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호는 모든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회원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그들이 좀더 잘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에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포함된다. 새로운 용어, 모임, 가르침이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결정에 대해 친구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별호는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특별호 안에는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고, 간증이 담겨 있으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제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어떻게 대답

할 수 있나요?”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와 같은 질문이다.

특별호에는 제일회장단 메시지, 방문 교육 메시지, 함께 나누는 시간, 후기 성도의 소리를 포함하여 평소의 모든 기사들이 게재되지만, 각 기사마다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겪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게 된다. 특별호에는 또한 교회 잡지에 대한 소개와 잡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이 포함된다.

젠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종은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던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잡지, 특히 이 특별호가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강화해 주고, 그들이 교회에 완전히 들어오고 그 안에 남아서 복음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잡지의 내용에 친숙하게 되라는 격려와 함께 이 특별호를 모든 회원들에게 권한다. 새로운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구독 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지역의 배부 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국제 무용수들, 50주년을 기념하다

50년 동안, 50 여 개국 이상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IFDE)은 학교 사절단으로 공연을 해 왔다. 세계 곳곳의 문화에 바탕을 둔 무용 활동 반세기기를 기념하는 올해에 그들은 과거 방문한 적이 없는 세 나라, 즉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공연을 갈 예정이다.

올해 그들의 레퍼토리는 10개 국가의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 말, 무용단은 연례 하계 여행 일정을 위한 준비로 10일 동안 순회 공연을 가졌다. 올 여름 그들은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이들 3개국 또한 민속 무용

면에서 풍부한 유산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무용 중 하나인 호파크는 30년이 넘도록 무용단의 공연 레퍼토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무용은 흥미진진해요. 움직임과 회전이 거의 곡예 수준입니다.”라고 에드윈 지 오스틴 무용단장은 말했다.

“힘이 드는 무용이에요.”라고 무용수인 에디 차는 말했다. 그는 호파크의 다양한 움직임, 예를 들어 무용수들이 쭉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발로 내치는 ‘오리걸음’, 또는 4명의 무용수가 둘씩 짝지어 한 조가 되어 서로의 위로 날아오르는 ‘4인조 나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호파크를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 공연한 후, 무용단은 국제 무용 예술계의 비공식 초청에 따라 캐나다 퀘벡으로 여행할 예정이다. 오스틴 형제는 이 무용단이 국제 무용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여행의 목적은 두 가지, 즉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교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곳의 회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차 형제는 이 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서울에 있는 집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로 온 직후에 이 팀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해 무용단이 공연했던 전통 부채춤을 기억한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라고 차 형제는 말했다.

무용단은 설립자인 매리 비 켄슨의 지도 하에 1956년, 불과 네 쌍에서 여섯 쌍의 무용수만으로 출발했다. 1964년에 켄슨 자매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 무용단을 대동하고 최초의 국제 순회 공연을 떠났다. 그것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국제 순회 공연을 떠난 최초의 학생 그룹이었다. 현재는 180명의 무용 단원들 가운데 30명이 순

회 팀에 소속되어 있다.

오스틴 형제는 켄슨 자매의 뒤를 이어 무용단의 단장이 되었다. 그는 50년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무용단에서 불과 두 번째로 단장이 된 사람이다. 초기의 국제 순회 공연은 그들이 다녔던 나라의 민속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곳에서 이름을 소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 그룹은 교회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들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라고 오스틴 형제는 말했다.

오스틴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 시절 켄슨 자매의 지도 하에 그룹의 일원

으로 무용을 했다. 또한 그는 무용단에서 아내를 만나기도 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 중에서도 이 그룹과 함께 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오스틴 형제는 말했다.

또한 이 그룹은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표준과 신앙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교회는 규모 면에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오스틴 형제는 올 여름에 그곳에 간다는 사실에 마음을 설레고 있다. ■



브리검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이 2006년 6월에 설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2006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를 참조한다.

1. 초등학교의 각 교사에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간단한 경험을 나눌 준비를 해오게 한다. 고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리아호나에 나오는 제언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고 확실히 말한다. 리아호나에 있는 다음 이야기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직접, 또는 고학년 어린이들을 통해 들려 준다. “기도라는 구멍 뚫줄”,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2003년 7월호, 친2~3쪽; “커가는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2003년 4월호, 친2~3쪽. 기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교사 주위에 작은 그룹으로 모이게 한다. 교사들이 기도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나누도록 한다. (어떤 경험들은 나누기에 너무 성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어린이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각 그룹이 경험을 그룹 전체와 나누게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반응을 들어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간증한다.

2. 노래 발표: “주 앞에 나와”(어린이 노래책, 80쪽) 이 노래는 사실 선율이 있는 기도이다. 첫째 소절을 가르칠 때,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누구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첫째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그 질문에 답하게 한다. (“주 앞

에”—주님의 방법) 첫째 소절을 다 함께 노래한다. 각 소절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르친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죠?”라고 말한다. 둘째 소절을 부르고, 어린이들이 뒤따라서 대답하게 한다. (“내 해야 할 일”)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까?”라고 묻는다. 셋째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뒤따라서 대답하게 한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라고 묻는다. 마지막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뒤따라서 대답하게 한다. (“주님의 말씀”) 노래 전체를 부르고 교리와 성약 112편 10절을 나눈 후, 기도는 응답된다고 간증한다. ■



충성스러운 동생으로부터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홍성미 자매 가족

작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남편인 김윤희 형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국인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보았지만 그 날따라 남편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키지 않았던 제 마음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내 흔들렸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봉사하는 진솔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음 토론을 하고 작년 7월 17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제 딸 현진이는 만 8세가 되면 남편의 손을 빌려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 김윤희 형제는 저보다 훨씬 전인,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영어를 써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에 도움을 받고자 길에서 본 외국인 선교사를 남편이 먼저 찾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고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평들로 공격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교회 친구들이 유학이며 여러 이유로 와드를 떠나면서 남편은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교회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회인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 온 남편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되돌려 준 일은 작년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동생이라고 부르던 동료가 등을 돌리는 바람에 직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충격보다 남편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이 남편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몇 년 전에 받았던 이메일 한 통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은 20년 전, 남편에게 침례를 주었던 선교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브라이스 형제님은 BYU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일 때문에 한국에 간혹 오는데 그때마다 남편을 찾아 보려 했다고, 또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지는 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스 형제님은 편지를 끝마치면서 “충성스러운 동생”이라 써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 준 그 충성스러운 동생을 생각하며 남편은 20년 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진정한 친구가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14로 전화를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은 남편은 저와 현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교회에 온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김 형제는 선교책임자로 부름을 받았고, 저도 영어 회화반 코디네이터로, 와드 선교사로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토론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 온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서대로 안정되게 자랄 것을 무척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것이 교회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motto처럼 말이죠. ■



홍성미 자매 침례식에서.

우리들의 운명의 대회

울창한 숲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매년 후기 성도 독신 회원들이 치르는 여름나기 의식 청년 대회. 이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품은 공통된 꿈 한 가지는 바로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일 것이다. 이 꿈을 이룬 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올 해 여름, 전국 각지의 대회에서 전개될 드라마를 미리 그려보자.

들꽃으로 마음을 전하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신남희 자매

1998년 변산반도에서 열렸던 광주, 전주, 순천 지역 합동 청년 대회에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같은 대대였는데, 대대원끼리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처음 고 형제를 봤던 일이 생각납니다. 곧 선교 사업을 나갈 거라며 자기를 소개하는데 형제 주변에 빛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 형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 참 성실해 보이고 교회 부름을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을 때 좋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산행을 할 때였는데, 꽃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고 형제가 산에 핀 들꽃을 꺾어서 다른 사람들 몰래 건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모습이 꼭 시골 총각과 처녀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꽃을 받고 형제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형제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제 뒷모습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대회를 마치고도 편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 떨어져 살았기에 편지를 통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는 두 사람 다 선교 사업을 나가서 편지를 통해서만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트는 귀환 후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를 전주 덕진 공원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었던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너무 행복해서 이 상태로 저와 영원히 함께했으면 하고 생각했다고 합

왼쪽: 고광필 형제와 신남희 자매 결혼 사진.
오른쪽: 맨 위 오른쪽에 고광필 형제가, 맨 아래 오른쪽에 신남희 자매가 같은 대대원으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니다. 저는 남편이 살던 제주도에 갔을 때, 아름다운 해변에서 야경을 구경하며 '이 멋진 장면을 고 형제와 함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귀환 후에 아직 직업이 확실하지 않았던 남편을 저희 가족들이 탐탐치 않아 했고,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 회원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으며 결혼식을 할 때 재정적인 도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매주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를 거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신 회원들이 지닌 어려운 점들을 영원한 결혼을 통해 해결하도록 방안을 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신앙이 있다면 분명 그렇게 됩니다.

저희는 단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추억 중 한 가지는 화장실 사건인데, 저희 집 화장실은 들어 갔다가 나오면 온 몸에 땀새가 지독하게 배는 구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공원에 있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는데, 남편은 "우리 집 화장실은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화장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되려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교회 회원 댁에 초대받아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배가 짜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그 때 자신도 배가 아프면서 저를 업고 공원 화장실을 향해 힘껏 뛰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임대아파트이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땀속에 있는 일명 "건강이"도 몇 달 후에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복음 원리를 실천하며 열심히 사는 오늘을 건강이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운명의 대회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장용석 형제 가족

저희 부부는 1997년 대전과 마산의 합동 청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대회와 별반 다른 기억이 없는 해였다고 하지만 저는 그 대회를 "운명의 대회"라고 부릅니다. 대회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선가 또랑또랑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제 귀에만 유독 똑똑히 들려왔던 목소리를 가진 아내는 눈



왼쪽부터 김지우 자매, 큰 딸 장수연 자매, 막내 장지은 자매, 장용석 형제

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자매를 지켜보며 저는 말 그대로 첫 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저는 대회 중간에 말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용기를 내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꿈 꿔 않던 그 때, 우연히 친한 회원의 아이 돌잔치에 갔다가 또다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아내도 그 때 놀랐다고 합니다. 우연히 참석한 돌잔치에서 자기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형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되다는 굳은 결심으로 아내에게 다가갔고, 저희는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때 제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웃기도 없고 말수도 적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 착하고 신중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죠."

저희는 서울과 창원을 오가면서, 편지와 전화를 통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년. 저희는 드디어 꿈에 바라던 성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꽃처럼 예쁜 두 딸 수연이와 지은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회는 비슷한 점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서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결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독신 회원들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점 없이 만났지만 이제 가족으로 닮아가는 저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신영숙 자매

스무 살을 갓 넘겼을 때는 여러 지역에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아서, 20대 중반에는 선교 사업 때 만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신영숙 자매와 남편 김양우 형제, 그리고
부부의 첫째 딸 김예은 자매

있다는 기쁨에 대해 청년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결혼 적령기인 나이가 될 때까지 유혹이 많았지만 매해 청년 대회에 가려 했던 제 노력은 저희 남편 김양우 형제를 만난 2001년에 중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김 형제는 청주에서 온 회원이었습니다. 같은 대대여서 자연스럽게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회원으로 호감만 가졌을뿐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계속될수록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김 형제가 유독 빛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개회를 할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경전을 들고 1등으로 와서 대대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며,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밤 늦게까지 준비하는 그 책임감과 열성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김 형제가 제게 이야기했지만 김 형제도 제가 새내기 독신 회원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는 이메일과 인터넷 메

신저를 하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습니다. 찬송가 mp3도 다운받아 서로 주고 받았습다.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영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쌓였고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제 배우자의 모습을 김 형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연은 주님의 인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2년 여 동안 사랑을 키워가던 저희는 2003년 4월 5일에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저희 사이에는 세 살된 딸 예은이도 함께 합니다. 요즘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예은이와 남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몰몬경이야기를 읽는 순간입니다. 청년 대회에서 얻은 축복과 신앙의 힘으로 이룬 결혼은 끝이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청년 대회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해 주셨고 성전 결혼까지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그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놓쳐버렸을지 모릅니다. 항상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다 이런 일도 겪어 봤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대, 직장, 학교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경험과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리아호나 기자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문: 지혜의 말씀에 얽힌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간증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 속 현장, 즉 이야기와 관련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권장합니다)
기한: 8월 25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간증, 그 마음을 담은 그림

12월에 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

과 순간, 어린이의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린 그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초등학교役員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부문: 예수님에 대한 초등학교 어린이의 간증이나 간증을 담은 그림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
기한: 10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제2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한국 공보 위원회와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중앙 매일 신문에서 후원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4월 22일, 서울 북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열렸다. 공보 선교사 판스워드 부부와 서울 선교부 부부 선교사 존슨 부부, 피제이 로저스 형제, 그리고 중앙 매일 해럴드 국제 신문의 트레이시 배렛 편집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스테

이크와 5개 지방부에서 온 66명의 학생들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영어 말하기 실력을 선보였다. 그 중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김영원 형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가족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은 힘들 때 저를 보호하는 성과 같습니다. …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려운 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가족을 이룬다면 이 사회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라며 행복한 가족이 주는 축복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회 부문별 최종 우승은 고등부에 부산 스테이크 송성이 자매가, 중등부에 대구 스테이크 김영원 형제, 초등부에 전주 스테이크 이수빈 자매가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들과 준우승자들은 모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

브리검 영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방한

브리검 영 대학교 매리어트 경영대학원 네드 시 힐 학장과 동대학원 더블류 스티브 알브레크트 박사가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방문에서 힐 형제와 알브레크트 형제는 한국의 기업체와 학계, 언론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의 강연회에 출연했고, 5월 7일에는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청년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과 서울 선교부 선교사들과 함께한 노변의 모임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힐 형제와 알브레크트 형제는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리 인터내셔널 법률 사무소, LG 그룹 이사진과 함께한 강연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범하는 비윤리적 행위의 부당함과 좋은 윤리의 성립에 대한 주제로 말씀했고, LG그룹 강연회 후에 그룹 내 BYU 졸업생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내용의 강연회가 서울 대학교, 연세 대학교, 경희 대학교에서 열렸다.

두 연사는 강연회와 노변의 모임을 통해 “좋은 기업 윤리는 좋은 비즈니스로 이끕니다. … 윤리적 행위는 더 깊은 이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정한 보수, 공평한 경쟁을 통해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는 또한 단순히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라며 이러한 윤리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대학이 가르치며, 기업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식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을 저버리는 사소한 타협들이 부른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말하며, 작은 선택이라도 올바르게 정직하게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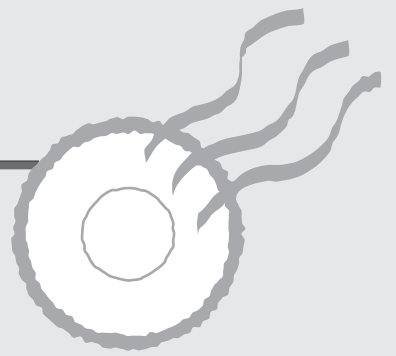
한 힐 형제는 자녀를 윤리적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윤리적인 행위의 모범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식별해야” 한다며 사회 윤리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한편 두 연사의 한국 방문 활동과 인터뷰 기사가 매일 경제 신문과 매일 경제 방송 MBN에 보도되었다.(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



매일 경제 신문에 실린 브리검 영 대학교 힐 학장과 알브레크트 박사의 인터뷰 기사



성전에서 보낸 편지



이도환 성전 회장

서울 성전이 헌납되고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는 국내외에서 온 수많은 성전 선교사들이 봉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성전 선교사들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오신 천낙서 장로 내외와 유타 주에서 오신 권 장로 내외, 그리고 인천 스테이크에서 오신 박양호 자매님과 서울 북 스테이크 출신인 김현분 자매님, 유타 주에서 오신 김휘나 자매님 등 모두 일곱 분이 계십니다.

김현분 자매님은 “저는 10년(1986년부터 선교 사업 시작)의 선교 사업을 채우기 위해 여덟 번째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즐겁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8년 전에 성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남편 안희운 형제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김휘나 자매님은 “가장 소중한 남편 김차봉 형제를 잃었지만 반면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고통과 행복, 아픔과 즐거움, 기쁨의 경험을 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도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새삼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이곳에서 봉사함으로써 저의 네 자녀와 열 명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왔던 할머니로 기쁨을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은 또다른 기쁨을 전하십니다. 천낙서 장로님의 동반자 천인덕 자매님은 “딸 일곱을 뒷바라지 하다보니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스물네 시간 함께 지내고 봉사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기회가 성전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갖지 못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중한 경험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복음 생활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말뿐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고자 선교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께 헌납하는 이 귀중한 기회를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선교사 경비는 부부가 생활할 경우 집세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하여 매월 35만원 정도를 납부하며 그 외에 개인 생활비 및 잡비가 필요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성전 봉사를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 마치는 것이 성전 선교사들의 일과입니다. 예외인 날은 새벽 6시 의식이 있는 수요일과 오전 7시부터 봉사하기 시작하는 토요일입니다. 서울 성전의 선교사 정원은 원래 18명인데 지금은 방이 다섯 개나 비어 있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사업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헌납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전 선교사들. 뒷줄 왼쪽부터 권 자매, 권 장로, 이도환 성전 회장, 천낙서 장로, 천인덕 자매, 김재숙 자매, 박양호 자매, 김현분 자매, 김휘나 자매.

최현민 형제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1월 어느 토요일, 추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전도를 하던 중에 저의 동반자 킹 장로가 기차역 근처를 배회하던 최 형제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현민 형제님은 11년 전에 당한 교통 사고로 말하는 능력을 잃어 버린 21살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본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 동반자는 최 형제님을 전에도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특별한 느낌을 받아 대화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글씨를 써서 이야기하는 형제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킹 장로가 저를 불렀고 우리는 기차역 대합실에 함께 앉아 구원의 계획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최 형제님은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아주 해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형제님이 교회에 참석했고 우리의 토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경전 구절을 나눌 때는 “와!”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종이에 써야했기 때문에 조금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2주 후, 2월 4일, 최현민 형제님은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 주에 확인 의식을 받았습니다.

걸어서 한 시간 걸리는 교회에 늦게 도착할까봐 항상 뛰어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는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월 중순에 형제님은 아론 신권 제사에 성임되었고, 저희 일정이 바빠지면서 2주 동안 평일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에 다시 만나 물문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던 중 저와 동반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쓰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저와 제 외국인 동반자 네슬리 장로가 알아듣기에 충분했습니다. 10년 넘게 말 못하던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10년 전 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걸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



최현민 형제의 침례식에서

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 느낌을 다시 받았으며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연습했습니다.”

이제 최형제님은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릅니다.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너무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최현민 형제님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아론 신권 기념 행사
- 인천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 대회
- 전주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 대회
- 제주 지방부 제주 지방부 대회

새로 부름받은 서울 선교부 조만구 회장



한국 서울 선교부의 새로운 회장으로 조만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2006년 7월 1일부터 조만구 회장은 아내인 민영재 자매와 함께 서울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선교부

회장으로 부임하며 조만구 회장은 “32년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서울 선교부 경계를 넘어보지 못한 제가 다른 곳도 아닌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름에 놀라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신앙과 겸손히 최선을 다할 때에 늘 도움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부름에 충실하겠습니다.”라며 부름에 대한 감사함과 포부를 전했다. 조 회장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서울 서종교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고, 서울 성전 인봉자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했으며 과거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과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춘천 지부 회장, 장안 와드 감독으로 봉사했었다. 민영재 자매도 부름을 받기 전까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초등회 교사로 봉사했고 조만구 회장과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

당신의 계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전국 LDS 청년 음악제

11월 25일,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한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그들만의 축제, ‘2006년 전국 LDS 청년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당신의 계절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준비될 이번 음악제에서는 청년 독신 성인들이 준비한 음악과 영상으로 만물의 시작인 봄과 화려한 만물의 외형, 달려감이라는 부제를 지닌 여름,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가을, 그리고 깨달음과 성숙의 계절 겨울을 표현할 것입니다. 독신 회원들은 그룹을 짓거나 개인으로 음악제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 종교교육원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대전시 우성 예술 회관

참여 대상: 전국 모든 청년 독신 성인

관객 대상: 전국 후기 성도 회원과 구도자들 모두 환영함

일시: 2006년 11월 25일

